

# 마이스 산업 · 문화예술 · 청년 스타트업 집적화

## 대규모 전시컨벤션 중심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일대를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개발하기로 한 것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 이곳을 전주 경제의 심장부로 만들겠다는 의의이다.

시는 이곳에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4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 판매시설 등 마이스 관련 인프라와 문화·예술공간, 청년 창업기지가 될 스타트업 공간 등을 집적화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준호 롯데쇼핑(주)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13일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서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 우범기 시장의 포부

### “꺼져가는 전주 경제 심장박동 되살릴 것”

“지리적으로 전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이곳 종합경기장 부지에 마이스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인프라를 조성해 꺼져가는 전주 경제의 심장박동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문화·역사·예술·한지·한옥·소리·음식·완판본 등 전주만의 전통 문화자산과 브랜드가치가 높은 자존의 도시이자, 농생명·수소·탄소·드론 등 다양한 특화산업을 보유한 미래 경쟁력을 뽐낼 수 있는 도시”라며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문화자산과 특화산업을 보다 진취적으로 육성·발전시켜 현재에 머무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고, 다양한 국내·외 대형 행사 유치전에서 경쟁 상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뼈아픈 현실”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마이스 복합단지는 기업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등으로도 이어져 뒤쳐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전주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발판이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글로벌 마이스 복합단지라는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통해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컨벤션 행사를 발굴해 한옥마을과 덕진공원을 잇는 관광 트라이앵글을 형성해 가겠다”면서 “전주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전주종합경기장, 60여 년 만에 새 모습 갖는다

건립 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이전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총사업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전북은 전북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도내 입주기업 등의 전시·회의 등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가 없는 관계로 다른 지역에 많은 기회를 빼앗겨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와 고급 호텔, 쇼빙·문화시설 등을 갖춘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길 예정이어서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는 기업유치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연결돼 전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도는 공간으로

우범기 전주시장이 밝힌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계획’은 종합경기장 일원 약 12만715㎡의 부지에 △글로벌 마이스산업 핵심 거점 공간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 △메타버스 융복합 청년 스타트업 공간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열린 광장 등을 조성하는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 복합단지 조감도(사진 왼쪽)와 투시도.

## 마이스 복합단지로 60여년만에 새 모습... 지역경제 새 성장동력 2028년까지 전시컨벤션센터·호텔 등 마이스 관련 인프라 갖춰져 내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 착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등 진행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마이스산업 핵심 거점의 경우,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주)이 2만㎡(육내=1만㎡, 옥외=1만㎡) 규모의 전시장을 갖춘 대규모 전시컨벤션센터(약 3,000억원, 민자=2000억원·재정=1,000억원)을 지어 전주시에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대신 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의 27%인 3만3,000㎡를 대물로 변제하고, 롯데쇼핑(주)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지원하는 △호텔(4성급, 200실 이상, 약 1,000억원) △판매시설(약 5,000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 ▲신호탄 쓴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속도’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주)과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변경된 협약에는 착공기한과 사업기간

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 이르면 오는 2028년까지는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판매시설 등의 주요 마이스 관련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게 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전시컨벤션센터 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불가능에 도전하며, 혁신과 변화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사람이 모이고 활기찬 전주, 누구나 잘 사는 전주로 가는 그 기적을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욱기 기자

하늘과 맞닿은 새로운 트레킹 코스를 소개합니다

# 방축도 감성 여행

군산 고군산군도 방축도 출렁다리